



## 自薦과 他薦사이

세상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민족의 정서적 공감대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나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겸손하면서 남앞에 나서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남들도 다아는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난척을 한다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새없이 떠드는 사람은 주변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는 게 불문율(?)이기도 하다.

자리에 앉아도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봉사하는 자리나 지원자를 찾을 때 손을 들고 선뜻 나서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우리네의 습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사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지나친 겸손 또한 미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여년전만 하더라도 인쇄업계의 지도자 자리는 말으실 만한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역지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단체장 자리를 이어왔다.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自薦은 남우세스러운 일이라는 성향이 짙게 깔려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인쇄업계의 정부포상이나 인쇄문화대상제도 등 연례적인 시상제도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인쇄관련인들이 훈장서훈을 비롯, 인쇄문화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인쇄인들의 귀감으로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신청기간을 통해 서류를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부처에 접수하거나 수상자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도 열린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곤 한다. 신청방법은 自薦과 他薦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인쇄인들의 정서 탓인지 자천은 그리 흔한

인쇄인들의 정서 탓인지 자천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본인이 상을 받겠다고 나서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조용히 말없이 쌓아 온 공적은 본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천과 타천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편이 아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본인이 상을 받겠다고 나서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조용히 말없이 쌓아 온 공적은 본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를 글로 쓰는 자체가 남우세스러운 일이라는 하지만 혹시라도 상을 받을 만한 분은 비켜가고 상을 받기에 미흡한 분이 상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시상제도에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 좋은 분을 추천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본인이 공적을 밝혀서 자천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인쇄업계 문제해결도 마찬가지이다. '나 한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라든가 일이 바빠서, 관심이 없어서 등의 핑계를 대고 뒷전으로 물러서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힘이 약해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천이건 타천이건 앞장서는 인쇄인이 많아야만 인쇄업계의 성장 모터가 작동될 것이다. 자천과 타천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오세익 편집주간